

시설 기준 맞추랴... 새 어린이집 적응하라...

보육시설·학부모·아동 '몸살'

광주시, 작년 위법시설 단속 이후

광주시내 어린이집 보육 아동과 학부모, 보육시설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운영정지·폐쇄 등으로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아동·학부모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고, 보육시설들은 보다 엄격해진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6·9·11월 3차례 1천83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보 조급 허위청구 등 234건의 위법사태를 적발, 이 가운데 19개 시설은 3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41곳은 사실상 장전폐쇄토록 유도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애 말길 데 없어서 직장 그만둬”=조모(여·28·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최근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13개월 된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보조급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돼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곳저곳 다녀왔지만, 집 근처에 마땅히 보낼 데도 없고 아들도 적응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처럼 갑자기 어린이집을 바뀌어야 하는 어린이들은 500여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운영정지에 들어갔거나 오는 2월부터 운영정지에 들어갈 19개

시설 351명에 자진폐쇄 또는 직권폐쇄된 41곳의 어린이집을 합하면 1천여 명을 육박할 것으로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모(여·33)씨는 “낮가림이 심한 아이를 갑작스레 다른 곳으로 보내자니 걱정이고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지침과는 달리 관할 주소지 밖에서 온 관외아동(官外兒童)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못박아 직장인 학부모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김모(여·32)씨는 “북구가 주소지만 동구에 직장이 있어서 아이를 근처 보육시설에 맡겨왔는데 3월부터는 보육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며

“2년에 한 번씩 인사가동이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나”고 말했다.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차영희(아동심리 전공) 교수는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대소변을 가리 못하고 집중력 장애 등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설 기준 맞춰야 산다”=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최근 형제를 데리고 온 한 학부모를 돌려보내야 했다. 연령별 정원 기준에 따라 둘째 아이는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아이는 받기 어려워서다. 보육당국은 보육교사 1인당 ▲0세 3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은 20명을 말도록 제한하고 있다.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아이들을 내보내라 하는 것은 교육권리 침해”라며 “운영정지 기간 중 말뚝한 시설을 놀리게 했는데 당장 생계도 문제지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보육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보육시설에서 아동수자를 부풀려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해해 단속이 불가피했다”며 “직장이 다른 자치구에 있거나 구간 경계가 거주지인 경우는 다른 자치구의 시설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내 한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광주시내 500여 명의 보육아동들은 올 초부터 다니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 등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다. <사진은 특정시설과 관련없음>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체요법 치료 암 보험금 못받는다

법원 판결 “의학적 효능 입증 안돼”

암(癌) 환자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흥우 부장판사)는 앞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대체요법을 제시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달라며 S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에프티·헬릭스·암노바 등은 암세포를 과사·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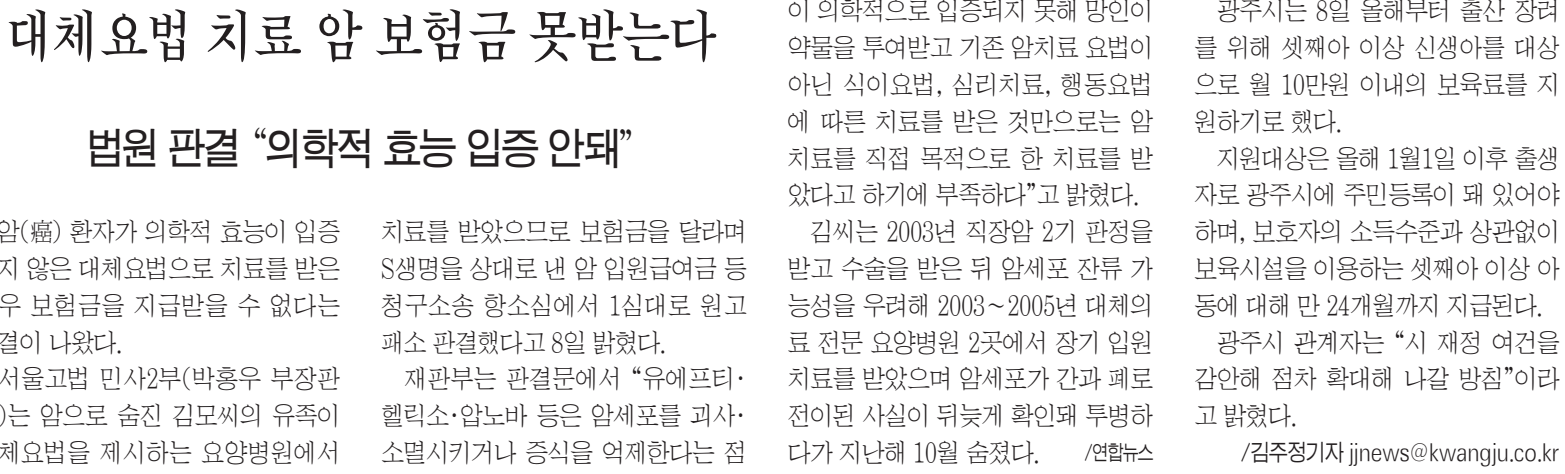
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해 망인이 약물을 투여받고 기존 암치료 요법이 아닌 식이요법, 심리치료, 행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직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암세포 잔류 가능성이 우려해 2003~2005년 대체요법 전문 요양병원 2곳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투병하다가 지난해 10월 숨졌다. /연환스

광주시는 8일 올해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만 24개월까지 지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반갑다, 검은머리물떼새”

목포서 8마리 관찰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사친) 8마리가 목포시 용해동 갯바위 앞 갯벌에서 관찰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 박수철 전남협회장은 “무인도에서나 관찰되는 검은머리물떼새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포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신안군 내 섬 지역 무인도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8일 설명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지난 2005년 2월 신안군 압해면 한 무인도에서 61마리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암초가 많은 무인도와 갯벌에서 서식하는 이 새는 부리와 다리는 홍색, 부리 끝은 검은색을 띠고 있다. 날개는 25~28cm, 몸 전체 길이는 45cm 정도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연초부터 살인사건 잇따라

노인·여성 상대 강도

신년 초부터 전남에서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밤 11시40분께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김모(여·55)씨의 집에서 김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이모(여·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강도야’라고 소리친 뒤, 전화로 도와 달라고 해 가보니 방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시신 옆에는 피 묻은 흉기가 놓여 있었고, 이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목포=이상선기자 lsh@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께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벽돌공장 내 방에 사는 김모(8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6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암손과 발이 나일뿐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복 상의가 목에 감겨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방 안을 뒤진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을 훔치러 온 강도가 저항하는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서도 “자녀 납치” 허위 협박 전화

광주에서도 자녀를 납치했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남부 방방동 민모(여·63)씨의 집에 아들 최모(33)씨를 납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민씨에게 “아들이 2천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납치했다. 대신 반제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최씨는 몇 시간 뒤 귀가했

고, 범인들의 협박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다. 최씨는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을 뿐 돈을 빌리거나 납치당한 적은 없었다.

경찰은 범인들이 민씨에게 걸었던 전화가 ‘080’ ‘001’ 등 국제번호로 시작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순천과 무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나원침 (7023) 김종두

“기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납치...”

“자녀 납치...”

평동선도서점의 중점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원제!

수원선도서점 피오리

문의: 062-367-9000

한 찜질방서 하룻밤 8건 도난 사고

○광주의 한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서 하룻밤 새 옷장 8개가 털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

○7일 오후 8시~8일 새벽 2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H찜질방 3층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양모(여·65)씨의 옷장 자물쇠를 훼손,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쳐 도주.

○절도범은 또 양씨 옷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옷장 7곳을 더 뒤져 현금 75만원과 금반지 등 약 180만원의 금품을 훔쳤는데, 양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찜질방 하고 나와 옷장에 오보나 옷장 자물쇠가 뜯겨 있었다”고 진술.

○H찜질방은 지난해 4월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찜질방 안에 설치했던 폐쇄회로(CCTV)를 전부 없앤 상태였다.

○경찰은 절도범이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 자물쇠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같은 혐의의 전과자를 추적 중.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자이리**

목재가공산업의 모토는 **“자이리”**

일일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회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재수출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재수출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재수출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개발조합

전화: 061-337-5535

팩: 061-334-5535